

1주차 : 환경의 역전 책 설명회 (1)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5일(목요일) / 장 소 : (비대면) 구글 미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1차 책 설명회] ; 팀원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 모여 같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책 설명회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p> <p><환경의 역전 전체적 줄거리 설명></p> <p>- 이 책은 연사들과의 강연과 인터뷰 내용을 엮어 책으로 묶어 출간한 책으로, 메디치 포럼에서 기획하였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홍민정 서유채 농장 대표, 가수 요조가 말하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미래의 환경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환경의 역전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친절히 제시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p> <p><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생태적 전환과 호모 심비우스 줄거리></p> <p>- Ecological Turn and Homo symbious -</p> <p>-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님께서서는 1만 년이라는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생태계의 최정점에 서게 된 인간들이 우리의 생활권확보를 위해 행한 환경오염들과 무책임한 생물다양성 파괴를 언급하시면서 이전의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행된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지배로 굴러갔지만 코로나 이후 ‘연결성, 연대’와 같은 키워드들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사피엔스적 사고보다는 타인들을 생각하는 생태 백신과 같은 활동인 호모 심비우스적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p>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생태적 전환과 호모 심비우스 감상평>

- Ecological Turn and Homo symbiosis -

[유*] : 최재천 교수님께서서는 특강에서 우리 인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 이유와 사회를 지배한 인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하시면서 왜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시고, 이전부터 환경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왜 지금에서야 확산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시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으셨다. 나는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사회성으로 중무장한 인간들이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효용가치가 있는 동물 종들은 남기고 나머지 종들은 구석에 몰아붙여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생물 다양성 불균형을 초래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채로 얼마나 무책임한 일들을 해왔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를 알면서도 망각하고 있다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창궐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야지라는 적자생존의 법칙보다는 모두가 안전해야 사회가 굴러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연결성'과 '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환경 쪽으로도 그 시각이 기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약 20년 남짓한 시간동안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 세계가 굴러가는 이유를 교수님의 말씀처럼 보응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두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백신으로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나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한 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서로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호모 사피엔스적 사고에서 호모 심비우스적 사고를 가진 채로 우리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말로만 보호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주*] : 강의를 듣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었다. 나는 생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에 관한 부분에서도 학문적이라고 할 만큼의 깊은 지식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부터 어쩌면 앞으로도 더 다양해질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열어주는 강의라서 뜻깊은 기회였다고 느꼈다. 또한 전염병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신선했다. 태초에 인간의 수는 고작 생태계의 1퍼센트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다른 종들을 밀어내고 90퍼센트를 넘어가는 비율을 차지한다. 인간이 수적으로 우세하게 되고, 동물의 거주지가 좁아지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그로 인해 살기 힘들어진 동물들로부터 전염병들이 옮겨오게 된다.

인류는 최대 업적인 문명 사회를 이루었지만 또 그로 인해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을 보호하자고 끊임없이 말하는 목소리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그저 막연히 아름다운 조화, 윤리, 후세대를 위한 것 뿐 아니라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익에도 자연환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자고 말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자연을 우리의 부속품이라고 여기고 가까운 생활에는 큰 악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른 종을 몰아낸 대가로 후폭풍을 몸소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을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좁고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선*]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은 사회성을 이용하여 생태계를 바꿔 놓았다. 인간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생물을 많이 키우고 나머지는 배척하며 결국 환경의 측면에서도 적용되어 환경에 대한 논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며 교수님이 강조하신 생명, 생태 중심 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교육받아야 함을 느꼈다. 인간의 사회성에는 교육과 인식이라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을하면 생명과 생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에 조그마한 인식과 관심이 생길 것이며 규모가 커져 결국 개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약 20년 남은 시점 동안 우리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 못 할 수도 있다. 다만 생명, 생태 중심적인 사고가 남아 있다면 나중이라도 반드시 달성은 가능한 목표라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환경에 앞장서고 실천하는 호모 심비우스로 나아가야지만 인간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에 앞장서는 심비우스 시민이 될 것이라 다짐하게 해준 특강이었다.

[연*] :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가 경제발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모든 국가가 맞서 싸우면서 국가 간의 코로나 팬데믹 대처 차이는 작지 않았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는 돈이 많은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세계화로 인해 세계적인 교류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 어디로도 피할 구멍은 없었다. 그로 인한 국가 간 사회적 경제적인 타격의 차이 또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 빈도수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속적인 환경파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결책은 바로 연대일 것이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만큼 전 세계가 같이 힘을 모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세계적인 연대를 통하여 환경파괴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전략 : R&D 분야 투자 및 정책 현황 줄거리>

-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님께서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가 기온을 상승시켜 대형 태풍, 산불, 탄소배출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가 석탄, 석유 등과 같은 고갈 자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셨다.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전환추세에 빠르게 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를 따라가려고 제정한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 소개해주셨다. 한국판 그린뉴딜이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타파하기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및 기후 환경을 선도하면서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정책인데, 이와 같은 정책들이 충실하게 잘 시행되는 것이 곧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자원에서 에너지를 얻는 시대에서 에너지가 큰 자원이 되는 시대로 바뀌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전략 : R&D 분야 투자 및 정책 현황 감상평>

[유*] : 임춘택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장님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고갈 자원 중심의 사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로 우리의 사회는 자원을 전환하고 있으며, 때문에 늘 같은 양이 나오지 않는 에너지들을 나올 때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인 배터리가 각광받게 되면서 발생한 배터리 시장의 성장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즉 앞으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재생 에너지의 사용량 급증, 전기차 붐 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에너지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변화 흐름을 받아들여 실행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원에서 에너지를 얻는 시대에서 에너지가 곧 큰 자원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강의에서 언급하셨다. 나는 이 특강을 들으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신 자유주의 체제에서 다시 국가 개입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더 이상 우리가 자원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로 있지 않고, 활발하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를 위해 정부 측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우리도 고갈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해야겠다고 느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개혁도 필요하겠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주*] : 인간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20년 남짓이라는 말이 이 강의 내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말이었다.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생태계가 많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데 이미 1도는 상승했으니, 0.5도가 상승하기까지는 약 20년, 빠르면 10년 안에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점에서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이산화탄소, 석유, 석탄, 친환경에너지 등의 비율과 증감에 대해서는 어릴 적 수업시간에도 많이 배워왔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그때는 그 문제들이 나에게서는 시험을 위해 외울 중이었기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 시대의 에너지 분야의 온도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것부터,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자원들이 어느정도 증가하는지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막 환경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는 나에게 이론적으로 정말 좋은 강의였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한 만큼 상위 개념이나 자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회를 통찰할 만큼 잘 알지 못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 습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익힐 수 있도록 시작해야겠다.

[선*] : 임춘택 기술 평가원장님의 강의는 글로벌 에너지의 변화와 흐름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강의였다. 예전부터 사용된 에너지는 많은 고갈의 위험에 처해져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셨다. 최근들어 신재생에너지는 만드는 효율과 저장의 기술이 크게 발전되었고 이에 전기차등의 성장배경이 굳건해짐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술은 정부만이 주로 사용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강의를 들으며 많은 개인에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단히 느꼈다. 정부의 그린뉴딜의 의미가 있으려면 대상인 개인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소중히 하며 그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에너지가 자원이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나부터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였다.

[연*] :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환경 보존, 그리고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나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 화석연료 사용과 전기 도입으로 인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사용량의 급증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짐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다음 전환점을 통해 우리는 친환경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우려되는 단점들, 예를 들어 세금 증가, 전기세 상승, 토지 부족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

책들도 미리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의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줄거리>

- 나석권 사회적 가치 연구원장님께서서는 ESG경영이 대두되기 이전의 배경인 1992년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RE 100, NET ZERO 선언과 같은 움직임을 통해 Skateholder Capitalism 즉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Shareholder Capitalism 윤리 자본주의로 이동하게 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통해 기업의 평가 기준 척도가 환경, 사회, 경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ESG로 변화했음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CSR, CSV와 같은 단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요하던 단계에서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도약했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ESG라는 큰 광풍을 서핑하면서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지으셨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의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감상평>

[유*] : 나석권 사회적 가치 연구원장님께서서는 ESG의 의미, 확산된 과거의 배경, 현재의 진행 방향,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며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연구원장님께서서는 ESG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일컫는 말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영을 위해 기존의 기업 평가기준척도였던 Shareholder Capitalism, 즉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도 Enviromental, Social, Governance 각각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Skateholder Capitalism 으로의 변화를 말한다고 하시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정부와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ESG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ESG라는 큰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이게 뜬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기업의 당장의 이익에도 타격을 줄 순 있겠지만 나는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가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이 먼저 태도를 생태적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하여 환경, 사회 결국은 지배구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선 먼저 환경에 대한 공부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우리 삶을 향한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주*] :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각 사회구성원의 책임 부분을 배우다가 기업 윤리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강의가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윤리와 책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분야에서 설명

하는 강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경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 기업은 자신들이 벌인 환경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원 상태로 환원되게끔 돌려놓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에 맞게끔 연표를 통해 ESG의 시작 시점을 다른 국제적인 협약들이 일어난 시점과 비교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도 기억에 남는다. 특히 넷제로 라는 제도가 정말 책임을 강하게 안고 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량만큼 탄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더 나아가 한층 깊은 사회 의식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양한 기업을 예시로 드는 설명을 들었을 때 사회적 가치 면에서나 환경적인 그런 면에서 성과를 이뤄내면 보상과 연계해주는 제도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성과와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가장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는 워낙 경쟁사회라는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은 보상을 중요시한다. 그런 시스템을 이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 :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장 나석권 님은 ESG의 의미를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닌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인 ESG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하시면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시작으로 2005년 ESG는 만들어졌다 하셨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국제사회에 등장하였고 이에 맞춰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과 경영도 환경관련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기업들은 ESG성적을 측정하는 시대이고 ESG는 의무가 되어 경영, 투자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강의를 들으며 감시와 평가를 중요시하신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IFRS등의 단어나 여러 국제적 흐름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ESG가 대두되는 시대에 나와 같은 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감시가 가능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동참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환경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작은 파도에 서핑 하듯이 환경보호의 흐름을 타는 개인이 되 고자 노력하겠다.

[연*] : 환경문제는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문제와 같이 얽혀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기업의 경영 또한 환경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기업 또한 환경을 생각하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주요 기업들이 RE100 등을 선언하면서 환경을

	<p>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시대까지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은 환경적인 경영 방식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를 받지 못하고 도태된다고 하였다. 나는 환경이 기업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한 그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것에서 앞으로의 기업 경영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다</p>
--	--

2022년 5월 5일

참가자대표 : 신 **

2주차 : 환경의 역전 책 설명회 (2)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장 소 : (비대면) 구글 미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2차 책 설명회] ; 팀원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 모여 같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책 설명회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p> <p><홍민정 서유채 농장 대표의 자연과 동행, 아쿠아포닉스 즐거리> - 홍민정 서유채 농장 대표님께서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질로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은 다시 그 물을 정화시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자연재배 순환 농법인 아쿠아 포닉스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친환경을 외치면서도 관행농법을 통해 땅의 자연 미생물들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비료덩어리 채소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살리는 농법인 아쿠아포닉스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실제로 UN에서는 아쿠아포닉스가 미래의 농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미 외국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성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노지재배 대비 90%를 절약할 수 있고 생산성도 크며 신선도의 유지도 4주 이상까지 가는 자연과 상생하는 아쿠아농법을 지향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권고하셨다.</p> <p><홍민정 서유채 농장 대표의 자연과 동행, 아쿠아포닉스 감상평> [유*] : 아쿠아포닉스 전문 스마트팜인 서유채 대표 홍민정님께서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을 살리는 미래 지향적 농업인 아쿠아 포닉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아쿠아포닉스를 소비해야만하는지, 그와 반대되는 관행농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연산을 먹을꺼냐, 마트에 가서 대충 사먹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당연히 자연산을 고를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면서 왜 식물은 비료 덩어리를 섭취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곧 아쿠아포닉스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혹은 인위적으로 무언갈 채우려고 하는 관행 농법보다는 당연히 자연적 미생물들을 존중할 줄 아는 아쿠아포닉스 농업이 각광</p>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아쿠아포닉스 농산물들을 소비하고, 아쿠아포닉스 방식을 통해 집에서 야채를 재배한다면 어쩌면 우리 환경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쿠아포닉스에 좀 더 밀도높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다.

[주*] : 나는 아쿠아 포닉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 특강을 접하게 되었다. 농사를 몇 번 도운 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키운 물로 식물을 키운다는 원리를 들은 이후에는 그저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고 느꼈다. 강연자께서는 아쿠아 포닉스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 들었던 강의가 생각났다. 인간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차지했다는 내용이였다. 그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좋다는 비료를 발명해내고 농사를 지어도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생물들끼리의 공생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인간의 개입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환경 하면 보통 먼저 떠올리는 에너지, 쓰레기 등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끝까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인간만을 위한 지구가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위한 진정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선*] : 서유채 대표님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을 살리는 아쿠아포닉스를 설명해주셨다. 식물과 물고기가 기반이 되는 공법으로 물고기를 키운 물을 식물에게 주고 다 사용한 물을 다시 물고기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 과정 중 나오는 유기물질을 사용한다. 좋은 품질, 편리성 등의 장점들을 말씀하셨고 이는 되게 혁신적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 강의를 들으며 아쿠아포닉스는 무조건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였지만 의문이 들었다. 아직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비료 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였다. 이 상추가 아쿠아포닉스인지, 또는 아쿠아포닉스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옆에 있는 상추가 더 간단한 과정으로 키웠으니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싸진 않을까? 그럼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다. 생물의 다양성을 이용했다는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며 아쿠아포닉스를 아는 사람부터 많이 이용해야 그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나도 찾아서 이용해 보겠다 다짐하게 되었다.

[연*] : 나는 강의를 들어가는 부분에 들었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다른 것들은 화학적 비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산을 고집하면서 왜

야채는 농약덩어리를 먹느냐.”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아쿠아 포닉스라는 농법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농법이 거의 100% 친환경에 가까운 농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순환시켜서 이익을 얻는 것. 나는 이 농법이 앞으로의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또한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농업이 지금의 일반 농업과 비교했을 때 식물의 성장 정도가 더 좋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흔히 농약을 뿌리는 이유가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하는 것보다 더 수확물이 좋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땅을 해치고 인간을 해치는 농업보다 아쿠아포닉스같은 친환경적 농업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라고 생각하였다.

<가수 요조의 개인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해질 수 있는지, 줄거리>

가수 요조님께서서는 요조님께서 살고계신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사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섬으로 각인되어있는 제주도가 사실은 바다에서 악취가 나고, 건물들이 건축되다가 방치되는 등의 오염과 위기의 현장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섬이었음을 실거주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다.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개인인 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직접 하셨던 노력인 새 제품 구매 지양, 중고소비, 일회용품을 다회용 용기로 사용하기, 비건, 안쓰는 천 가방 기증받기, 환경 관련 도서를 자신의 서점에 우선 입고하는 등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탄소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주범이기 때문에 조용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막기위해서 작지만 확실한 힘을 통해 개인들이 뭉쳐 어택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셨다. 이것의 효과는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매일유업 빨대 탄원서, 브리타 어택, 시가렛 어택, 화장품 어택등을 제시하셨으며, 우리 소비자들이 먼저 변화하고, 개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하셨다.

<가수 요조의 개인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해질 수 있는지, 감상평>

[유*] : 가수 겸 작가로 작은 책방을 운영 중인 요조님께서서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의 보여지는 이미지적 측면에선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상 직접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있는 마치 유령도시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도가 오염과 위기의 현장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소비를 지양하고 비건 생활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운영중인 책방에서 안쓰는 천가방

을 수거하는 등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양면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탄소배출의 주범이기에 현실에서 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보았을 때 조용한 무력감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때문에 개인의 힘이 모이고 모여 결국 단체를 이루어 조용한 무력감에 대적할 수 있도록 진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씀 하셨다. 나는 요조 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그 결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식의 태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부터 가치관과 신념을 중무장하고 단단한 생각을 통해 적어도 주범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정부 또한 개인들의 소수의견이다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즉각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주*] : 나는 최근 들어서 개인이 가진 힘과 개인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 이 특강을 듣고 플로깅 활동이 생각났다. 플로깅이란 걸으면서 주변에 널린 쓰레기들을 치우는 친환경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라서 개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개인이 쓰레기를 조금 줍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미미하겠지만 미래에 플로깅도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이 가진 힘은 정말 미약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회이므로 개개인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순간, 그때 개인의 힘은 강력해진다. 나이를 불문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친환경적 트렌드를 퍼뜨리게 된다면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코백의 에코가 더 이상 에코를 뜻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환경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에코백의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예시로 기업에서 시즌마다 무분별하게 내놓는 텀블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본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개인의 힘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환경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힘을 키우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선*] : 가수, 작가, 소상공인을 겸업하시는 요조 님은 개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직접 책방을 운영하시던 서울에서 제주도로 책방과 함께 오셨으며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기업과 국가에 의해 건물 공사는 방치되고 중단되며 베어지는 나무들을 보시며 개인의 노력을 다짐하셨다 말씀하셨다. 소비와 먹는 것을 줄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등 개인의 노력을 통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표현하셨다. 이

처럼 강사님은 개인의 힘을 강조하셨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결국 정부와 기업도 개인의 힘이 있어야 행동력이 생기고 결집력이 생긴다. 개인들이 단합해 요구하는 상황과 고객들의 필요는 기업의 방식을 바꾸고 상품의 구성 또한 바꾸기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봤던 나는 소비자 연대에 많은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이 보여주는 힘을 나 또한 실천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다짐한다.

[연*] :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개발을 하고 개발 후에는 방치하는 등의 행동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엔 돈에 직결된 문제이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관광으로 오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을 하기에 급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결과 그것은 바로 불매였다. 한 소비자 개인이 불매를 한다고 해서 생산자가 신경을 쓸 일은 전혀 없겠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여럿이 된다면 분명 생산자는 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을 누가 만들려고 하겠는가?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참가자대표 : 신 **

2주차 : 군중심리 책 설명회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3차 책 설명회] ; 팀원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 모여 같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책 설명회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귀스타브 르 귀봉의 군중심리 줄거리></p> <p>- 귀스타브 르 귀봉의 군중심리에서는 군중의 정신 구조, 감정과 도덕성, 사상, 추론, 상상력, 종교 형태, 신념에 영향을 주는 간접 요인, 직접 요인, 군중의 지도자와 그들의 설득 수단, 군중의 신념과 의견의 가변 한계, 군중의 분류와 다양한 종류를 각 파트 별로 제시하면서 군중에 대해 정의하고, 이들이 어떤 사회적 양상을 보이는지 제시하고 있다. 귀스타브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우리 군중들은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할 때보다 충동성, 과민성, 변덕, 피암시성과 맹신, 편협성, 독신, 보수성이 높아 그들의 의견을 완고하게 밀고나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으나, 의외의 도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들은 그들 무리를 이끄는 대표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 무리를 이끄는 대표자들은 선동되거나 그들의 의견에 쫓대가 없는 군중들을 휘어잡기 위해 확언을 하고, 이러한 확언을 광고처럼 반복하고 대중들에게 전염시킴으로써 얻은 위신을 바탕으로 군중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군중들은 이질적이든 동질적이든 이러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단순 개인으로 존재할 때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위해선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것이 귀스타브 르 귀봉의 결론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귀스타브 르 귀봉의 군중심리 감상평></p> <p>[유*] : 귀스타브 르 귀봉의 군중심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 개념에 대해 정의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망설이는 단어인 군중에 대해 정의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총체적인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군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룬 만큼 군중들이 구성되는 요소들</p>						

과 그들이 왜 특정한 행동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본인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 나는 군중의 도덕적인 행동의 측면에만 집중을 하여 군중이 모였을 때 그들의 의견을 더욱 확장시켜 전달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것에 더욱 그 비중이 컸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군중이 매우 도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지도자에게 더 선동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비판능력을 상실하고 암시성적인 측면으로 돌발행동을 하는구나 식의 생각을 원래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군중이 모두 악하다거나 모두 도덕적인 것은 아닌 만큼, 우리들 모두가 영향력있는 이들의 말 한 마디에 선동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비판적 사고를 못하지 않도록 늘 성찰하면서 돌아보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자신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를 위한 행동으로는 독서하기, 토론해보기와 같이 사고를 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주*] : 군중심리는 북클럽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책을 정하면서 가장 독후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책이었다. 군중심리라는 것에 대해 호기심도 있었고, 어렵듯이 쉬운 특성들을 알기는 했으나 좀 더 깊고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고 싶었다. 게다가 요즘은 이 심리로 인한 인터넷이나 SNS상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파다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중심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이 책이 적격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역사적 예시와 함께 내가 알팍하게나마 알고 있던 지식에도 신빙성이 생기고 더 깊게 확장된 생각을 하며 군중을 바라볼 수 있겠다고 느꼈다. 또한 가감없이 솔직한 표현들과 말에서 군중심리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위험하고 어찌면 장점보다는 단점과 단점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더 많겠다고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했다. 모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그것의 이점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시각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군중심리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상승한만큼 앞으로의 일들을 더 제대로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선*] : 귀스타브 르 귀봉의 군중심리는 군중심리의 뜻을 정의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지식들까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하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삶을 책에 담은 귀봉은 프랑스 혁명을 예시로 군중의 의미, 혁명이 발생하는 원인, 그 결과, 군중의 특성 등을 알려줬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군중의 선동은 단순히 자극적인 무언가에 끌려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일시적인 선동을 제외하면 결국 군중의 선동

은 자극이 이유가 아닌 그들이 살아왔던 민족성과 전통에 의한 것이고 민족성과 전통의 자극이 결이 같아야지만 선동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선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군중이란 무엇인지 배운 우리 심비우스 팀원 또는 읽은 사람 모두가 스스로 올바른 신념과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 선동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연*] : 나는 조원들과 군중심리에 대해서 서로 읽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군중심리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전부터 군중심리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접하거나 실제로 경험한 집단, 군중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처음 보는 용어들이나 개념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당한 책 분량의 내용을 조원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내가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했다. 또한 다른 조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원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에서 '유권자들은 선거공약에 갈채를 보냈고 그 덕으로 당선되었지만 자신들이 선출한 후보가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는 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 문장을 보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원하는 것은 유권자 한 개인의 무언가를 이끌 힘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과 당당함을 안겨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약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군중심리가 이래서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후보자가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으로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엄과 위엄발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기억에 많이 남았다. 또한 이 책에서 군중의 행동들을 설명 할 때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5월 12일

참가자대표 : 신 **

3주차 : 환경의 역전 토의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장 소 : CLC 스튜디오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1차 토의] ; 제 1차 토의의 의의는 팀원들 모두가 변화하고 있는 환경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p> <p><첫 번째 토의 주제 :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까?></p> <p>[유*] : 현재 환경 문제는 더 이상 경시해선 안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제는 관심을 갖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때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업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소비를 권장하고, 생산물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처리와 그를 옮기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엄청난을 인지하고, 소비자들을 설득할만한 ESG 경영의 표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를 적용할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ESG 경영의 표준 방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환경 문제에 대해 경시하고 있는 기업들을 철저히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도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세계의 움직임에 올라탈 줄 아는 대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는 오히려 개인보다 더 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p>[주*] :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환경 변화를 바라보면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제도로 발전하는 추세는 있을진 몰라도, 환경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면 개개인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인식 자체가 바뀌어 일상 생활 에서도 자연스럽게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나는 개인의 힘을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관심을 끌어내고 인식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개인보다 기업과 국가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국가가 환경은 뒤로 하고</p>						

개인의 다른 욕구만을 자극한다면 일부 개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쉽기 때문이다.

[선*] : 환경 변화를 미시적으로 보며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힘보다 기업과 국가의 행동 혹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큰 영향을 가지기에,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가 우선 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협약을 맺는 것부터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인 기업을 감시하고 관찰하며 ESG를 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우선 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 이후 기업에서 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국가의 정책과 비전에 참여해야 한다. 뼈대가 갖춰져야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서야 개인이 따를 수 있다 생각한다.

[연*] : 환경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성을 보이게 되면서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야하는 시대까지 도래하였다. 나는 먼저 국가가 기업이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할 수 있는 기업 운영을 하게 하기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이러한 국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ESG 경영에 좀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 기업은 정말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더욱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토의 주제 : 그렇다면 그러한 반응을 토대로 어떠한 대처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

[유*] : 먼저, 기업 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설득할만한 그린 소비, 윤리 소비를 촉진시킬만한 마케팅 전략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자동차 측면이라면 전기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를 들고나오는 것일 것이며, 식품의 측면에서는 육류 소비를 지양하고 비건 제품을 생성하는 노력,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 제작 및 FSC 인증을 받은 포장재 사용, 비닐 포장의 지양 등의 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어필 하면서도 착한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언갈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관리할 수 있을만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게 SK에코플랜트와 AWS가 합작하여 제작한 친환경 소각로 AI 시스템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를 본받아 충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쓰레기 감축 규제 제안을 세계 요구하면서 준법정신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과한다던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처음에는 미미할지라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ESG 경영의 표준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거나, 조금이라도 기준치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 경우에 용감하게 그에 대한 대책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한 곳만의 노력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 우선 기업은 소비욕구가 강한 대중들을 악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시로는 기업의 이미지, 마스코트와 관련해 매 시즌 무분별한 굿즈 상품들을 내놓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친환경적인 소재로 상품을 제작하거나 상품 제작으로 인해 발생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괜찮다. (안 쓰는 제품 매장 반환 정책 등) 또한 공익을 추구해 친환경적인 프로젝트 후 보상을 해주는 식의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플로깅 대회 등) 특히 기업의 어느 행위에는 넷제로 정책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는 넷제로를 실천하지 않거나 환경 문제를 제쳐두고 활동하는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은 쉽게 제정될 수 없고 지역 사이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로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상대로는 처벌뿐 아니라 친환경 우수 기업을 선정해 국민들 사이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과 같이 환경 대회나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자연스레 친환경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선*] :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환경을 오염 시킨다고 생각한다. 식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 또는 에너지, 생활품 등을 만드는 기업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정도는 다르겠지만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자동차 기업에서도 재료 등에 실용적이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적 배터리 예를 들어 전기차나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 사용과 같은 적극적인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정부가 감시하고 관리해줘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와 기업들이 서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들을 움직이게 하여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 : 기업의 ESG경영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업의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p>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바뀌고 기업이 개인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권장한다면 개인 또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겠지만 기업이 바뀌기 전에 개인이 먼저 바뀐다면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p>
--	---

2022년 5월 17일

참가자대표 : 신 **

3주차 : 환경의 역전 토의 (2)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2차 토의] ; 제 2차 토의의 의의는 팀원들 모두가 변화하고 있는 환경의 흐름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p> <p><첫 번째 토의 주제 : 개인은 휘몰아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하는가?></p> <p>[유*] : 코로나 이전까지는 철저한 개인주의 사상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코로나 이후 이 세상은 더 이상 개인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그만큼 우리 개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단결과 연대이며, 모두가 결과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리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개인만이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 되었으며, 이제 우린 심비우스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주*] : 위에서 밝힌듯이 나는 개인의 힘은 크고 중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노력을 강조했는데, 아무리 국가와 기업의 노력이 있어도 개인이 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노력의 본질인 환경에 대한 문제를 경시한다면 국가와 기업의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된다. 우선 개인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모이면 얼마나 큰 여과를 가져올지 자각해야 한다. 개인은 단 한명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인구 전부를 한 명 단위로 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앞에선 '단 한 명' 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더 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후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재 시대에서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부터 자각해야 한다. 즉 개인의 힘에 대한 자각과 환경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선*] :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신념이 다를 것이다. 나 하나의 영향력</p>							

이 뭐가 중요하냐며 여전히 담배꽂초를 마구 버리고,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이에 대해 간곡히 하나 됨을 강조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결국 일부 깨어있는 개인들의 힘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망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런 모순된 틀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 : 개인의 힘은 어쩌면 국가나 기업의 힘보다 거대할지도 모른다. 개인은 화합과 연대를 통해 국가나 기업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업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개인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개인은 국가나 기업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화합과 연대의 중요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환경 변화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의 화합과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환경 변화의 특성상 개인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개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화합과 연대의 자세를 가지고 환경 변화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의 주제 :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에 있어 개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유*] : 우리 개인은 이제 단순히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기엔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삶속에서 환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이 찾아보고, 실천해보는 것이다. 이를 테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카페에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음료를 마시거나, 개인 용기를 가져가서 테이크 아웃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잘 분리배출 한다거나 혹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보다는 걷는 걸을 늘리는 등의 일종의 제로웨이스트 활동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품들을 리사이클링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기업이나 국가가 우리 환경을 위하여 실행하고 있는 방안들이나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그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노력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한다거나, 거부를 하는 것 혹은 기업 측면에서 환경을 위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 관심으로 끝나기보단 일단 실천하는 자세가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써 위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는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 : 코로나로 개인의 생활이 많이 변하게 되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중 하나는 배달음식의 증가이다. 실제로도 통계 자료를 보면 배달업을 주로 삼고 있는 식당은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과도한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코로나 이전 일회용품을 줄이자며 보였던 운동과 남아있던 정신들마저 소용없이 힘을 잃게 되었다.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은 배달음식을 줄이는 소소한 노력에서부터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는 집단이 소수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개인에게 '입소문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현대인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셀럽이나 콘텐츠, 기업과 같이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과 개인의 개입이 필요로 될 수 있다. 친환경과 밀접하거나 큰 관련이 있는 무언가를 제품이나 콘텐츠, 즉 하나의 작은 문화로 만들어서 입소문을 이용해 주위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다.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환경에 대해 비교적 더 성숙하지 못한 10대와 20대를 우선적으로 겨냥한다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쉽게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젊은 세대는 아직 생활 방식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이기도 하고 이른 세대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모방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후세대가 친환경적인 것과 환경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개인의 노력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선*] : 환경을 지켜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개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스마트폰을 통해 집에서든 따라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줄이기, 재활용품 만들기, 리사이클 가게 이용하기 등을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실천에 필요한 자원이나 자본들이 절대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는 시대인만큼 모든 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정부를 직접 관심을 가지고 불매를 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애용하는 자세도 많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과 정부 정책에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개인의 재능을 이용해 환경보호의 다양한 부분들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 : 나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입으로만 환경이 심각하다고 계속 외친다고 한들 실천이 없다면 바뀌는 것은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기, 분리수거하기,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말

고도 셀 수도 없이 많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내가 먹는 음식들부터만 시작해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왜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까? 아직도 대부분의 개인들이 환경을 위해 개인의 조그마한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하기보단 '나 혼자 정도는 괜찮겠지', '다음부터 실천하면 되겠지'등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개인의 편의를 위해 환경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 물론 당장부터 지금까지 누려왔던 편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 이상의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부터 실천해나가서 최종적으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개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5월 19일

참가자대표 : 신 **

4주차 : 군중심리 토의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3차 토의] ; 제 3차 토의의 의의는 팀원들 모두가 군중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p> <p><첫 번째 토의 주제 :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p> <p>[유*] : 군중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가치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가치들은 사실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말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중 무리는 사실 그들의 리더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있던 것이다. 군중은 그들의 의견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그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확인과 반복 그리고 전염을 통해 위신을 얻은 리더, 즉 지도자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정당을 신봉하는 이들 혹은 사이비 종교 등이 있다. 따라서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그 무리를 이끌고있는 '지도자'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p> <p>[주*] : 나는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군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다른 비슷한 군중 집단이든, 아니면 본인이 속해있는 것과 같은 집단이든 군중에게 군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계속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군중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도 있지만, 동등하거나 비슷한 사람의 말일수록(혹은 그 여부를 아예 파악할 수 없는 상대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터넷 상 군중들의 모습이 있다. 한 기사나 영상의 댓글창, SNS를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나치게 충돌하기도 하고 다수가 동의를 표현한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현상이 나쁘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중은 자신의 사상이 자리잡고 생각을 키워나가는 데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비판능력 없이 따라가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직접</p>							

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군중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군중의 의견이 커지기 전으로 가면 미디어나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은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사상을 심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접근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군중이 가장 많이 상대하고 마주하는 군중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선*] : 나는 군중에게 결핍된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군중에게 결핍되었던 자유, 국민 선거때 군중들에게 후보자들이 군중에게 있어 부족한 무언가를 공약에 내세우는 것처럼 책에서 말했던 민족성, 전통에 과도 부합하는 것이 군중에 영향을 준다. 선동된 군중들의 결핍이 충족되면 군중이 다시 가라앉고 새로운 결핍을 찾아 탐색하고 다시 결핍을 찾아 선동되는 무한반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연*] : 나는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군중은 항상 하나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중으로 뭉쳐있었을 때 그들의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환상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환상이 없다면 군중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그 환상은 비도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들은 그들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채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두 번째 토의 주제 : 군중은 과연 도덕적인가?>

[유*] : 나는 군중의 도덕성에 대해 도덕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도덕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군중은 도덕적인 측면과 비도덕적인 측면의 양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중을 때론 올바른 신념 추구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선행이라고 불리우는 행동들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지 못하고 전체주의에 사로잡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 행위를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의 악행도 저지르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군중은 도덕적이거나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엔 어려움이 있다. 즉 군중은 도덕적 일수도 비 도덕적 일수도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주*] : 나는 개개인이 도덕적이어도 군중은 비도덕적인 경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 집단에서 도덕적인 개인이 더 많아도 언젠가는

비도덕적으로 몰들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집단이나 개인은 선한 의견에 몰들고 전파시키기 보다 비도덕적인 의견에 몰호르듯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단합에는 금방 금이 가고 언쟁과 함께 혐오와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간 비도덕적인 견해와 사상은 빠른 전파속도와 반비례해 없애는 데에 많은 시간이 든다. 어쩌면 평생의 숙제로 안고 가야 할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좋아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집단 사회에서 분열이 없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로 그러한 이기심에서부터 배려심은 사라지고 비도덕적인 군중 집단만이 남게 된다.

[선*] : 세상에 100퍼센트 악하거나 선한 군중은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엔 군중은 도덕적 측면보다는 비도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선한 개인이라도 어느 정도 같은 민족성이나 전통을 가지며 살아온 군중끼리 섞였을 때 그중 한 악한 개인이 그 결핍된 무언가로 선동을 시작한다면 선한 개인도 쉽게 몰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군중은 비도덕적일 확률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연*] : 나는 군중이 개개인의 합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군중이 개개인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군중은 개개인의 합이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난다기보다 제2의 존재인 '군중'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개인의 도덕성과 군중의 도덕성은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중은 군중 밖의 사람이든 군중 안의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의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동에 잘 휘말릴 수 있다는 점과 또한 개인이 군중이라는 다수 집단 안에 숨어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쉽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5월 24일

참가자대표 : 신 **

4주차 : 군중심리 토의 (2)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제 4차 토의] ; 제 4차 토의의 의의는 팀원들 모두가 군중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p> <p><첫 번째 토의 주제 : 군중을 나누는 요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p> <p>[유*] : 나는 군중을 나누는 요인에는 여러개가 존재하지만,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가치를 토대로 군중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중에 대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정의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군중을 그들이 향유하는 가치로 나누게 된다면 합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혹은 불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조금 더 유동적으로 분리시키는것이 가능해지면서 군중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주*] : 나는 군중을 나누는 요인을 딱 잘라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군중은 불특정 다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분야가 달라질수록 군중 집단도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상대 집단을 우리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이것은 군중을 나누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이다. 군중을 나누는 요인은 지극히 주관스럽지만, 그렇기에 나는 가치적으로 군중을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 틀린 가치가 아니라 한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군중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선*] : 책에서 나온 요인인 민족성과 전통 그리고 시간을 ‘전통문화’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문화라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의 그 군중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징표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행동하려는지를 전통문화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요인으로 나누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그 이유는 전통문화를 요인을 나눌 경우, 여러 군중들의 다름을 인정하기 편하</p>						

고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 : 나는 군중을 나누는 요인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뭉쳤는지를 중점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그들이 선거를 위해 모였다면 선거 군중이 되고 그들이 어떤 합의를 위해 모였다면 의회 군중이 되고 선거 군중과 의회 군중은 군중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들의 특성은 각각 다르다. 이는 그들이 모인 목적이 다르고 목표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군중은 그들이 모인 목적에 따라 아주 여러 특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군중으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중의 특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모인 목적'에 따라 군중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토의 주제 : 우리는 어떻게 군중을 바라보아야 할까?>

[유*] : 우리는 군중을 그냥 무리를 이룬 집단의 형태로 단순히 치환하여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떼면 군중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단 비판적으로 잘한점에 대해선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가감없이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해야만한다. 군중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에 대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군중의 배경, 군중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주*] : 우리는 군중을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군중 집단을 분열시킬 정도로 의 혐오를 동반한 비판이 아니라 군중이 가진 특성들을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군중은 도덕적일까? 라는 주제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는 장점에 가려져 꼬집어야 할 단점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큰 장점이 있어도 그것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 나는 장점과 단점은 그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로 묶지 말고 엄격히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우선시 해서 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군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군중이 가진 장점은 잘 보일 수 있지만 장점을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다보면 미처 우리가 찾지 못한 비판점은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선*] : 우리는 군중을 '그들만의 특성이니까' 등으로 판단하고 무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 동안 군중이 향유하는 잘못된 신념이 없을 확률은 없다고 본다. 결국 어디선가는 하

나의 고질적이고도 강도가 센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그 부정적인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고 고질적인 부분을 개선해야하는 것이 군중의 숙제라고 보며 우리는 어떠한 군중이든 당연시하게 존중하고 배려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중에게서 배울 점도 당연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서로에게 조언과 비판을 해줄 수 있는 동료 관계처럼 바라봐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연*] : 나는 우리가 군중에 대한 특성을 알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중은 심리학적으로는 오류인 것들을 믿고 행동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을 오해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비판적인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군중의 특성을 바로 안다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여 행동하는지 그들의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극단적인 군중을 접하였을 때 그들을 통제하거나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군중에 속해있을 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군중을 논리와 어긋난 심리를 가진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5월 26일

참가자대표 : 신 **

5주차 : 실생활 속 환경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실생활 속 환경] ; 5주차의 실생활 속 환경 활동은 우리가 환경의 역전을 통해 파악한 거시적, 미시적 환경의 흐름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하여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더욱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여보고, 이를 실천해보자는 것을 목표로 실행되었다.</p> <p><실생활 속 환경 문제와 기업 및 국가, 개인의 해결책 알아보기></p> <p>① 토양오염 문제 [유림]</p> <p>- 토양오염이란 토양 속에 다양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오염되는 현상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으로는 산성비, 농약, 생활하수, 비료, 공장 폐수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산성비에 의한 토양오염으로써, 산성비에 의해 토양이 산화되면서 식물을 도와주는 미생물을 죽이게 되면서 산림을 쇠약하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시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또한 토양오염은 다른 것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대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기업 및 국가의 해결책 : 토양오염과 관련된 비료 등의 부분에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이를 엄밀히 조사하고 감독하기, 쓰레기 혹은 가축을 매립하려고 하거나 매립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세게 물리고 이들</p>							

의 추후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토양 오염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위해 국가적 예산 투자하기 등의 노력을 예로 들 수 있겠다.

- 개인의 해결책 : 화학적 비료 사용하지 않고 중성 비료 사용하기, 쓰레기를 버릴 때 한번 더 생각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기, 재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기와 같은 노력을 예로 들 수 있겠다.

㉔ 수질오염 문제 [주회]

-수질오염이란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을 관측하였을 때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수질이 악화된 현상을 말한다. 이때 악화란, 물의 특정한 용도, 정상적인 값으로부터의 변화, 공중보건과 생태적 영향 등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수질오염은 우리 인간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수산업에도 피해를 발생시킨다. 수질 오염물질들은 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원과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분산 오염원에서 배출되는데, 간략히 설명하자면 점 오염원은 주로 산업부지, 도시지역에서 하천이나 강으로 배출되는 것을, 비점 오염원은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특성으로, 토지이용도, 기후, 수문 특성, 지표, 지형, 자연 식생, 지질학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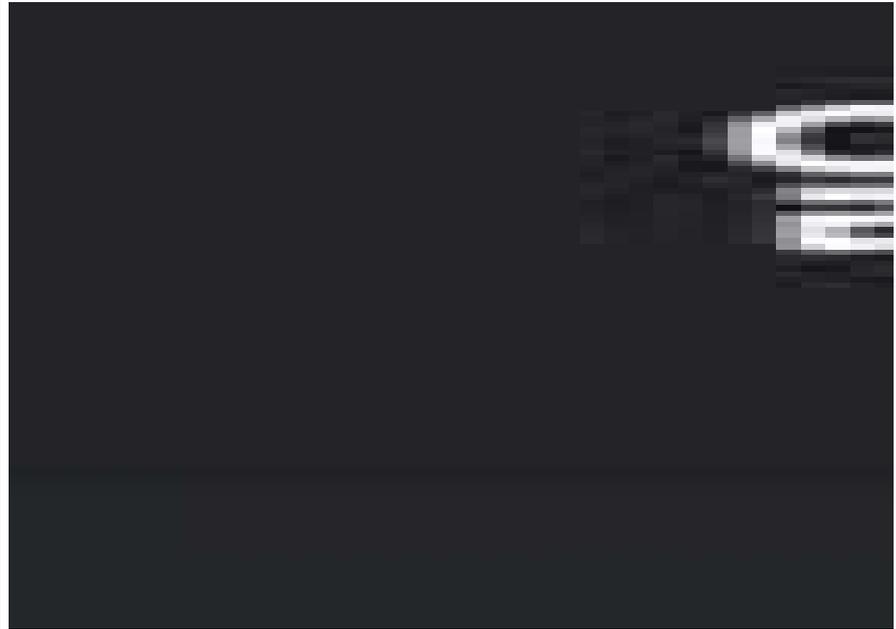


- 기업 및 국가의 해결책 :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분해되기 오래 걸리고 한번 떠내려가면 수습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선 처벌의 강도를 더 높이고, 근처에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카메라나 작은 기관을 설치해 사전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장 폐수를 아무 곳이나 흘려보내지 말고 따로 폐수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정수하는 활동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인의 해결책 : 개인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한 행위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세제와 같은 욕실, 부엌 용품을 최대한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절약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여행을 갈 때 쓰레기를 꼼꼼히 모아 따로 떨어진 곳에 처리해야 한다.

㉓ 대기오염 문제 [선준]

대기오염이란 인공적으로 배출되는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이 공기와 섞이며 지구온난화,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의 문제점을 낳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지구의 온도가 높아가고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단열복이나 공기통을 일상생활에서 입거나 차고 다녀야 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줄일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업 및 국가의 해결책 : 국가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대기오염 문제를 감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또 그를 잘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재를 가하고, 반대로 잘 참여하는 기업에는 보상을 주는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오염을 최소화 할 방안을 검토하고, 고객들의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침을 토대로 경영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개인의 해결책 : 환경오염이 곧 대기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 최소화하기 등의 친환경적인 방안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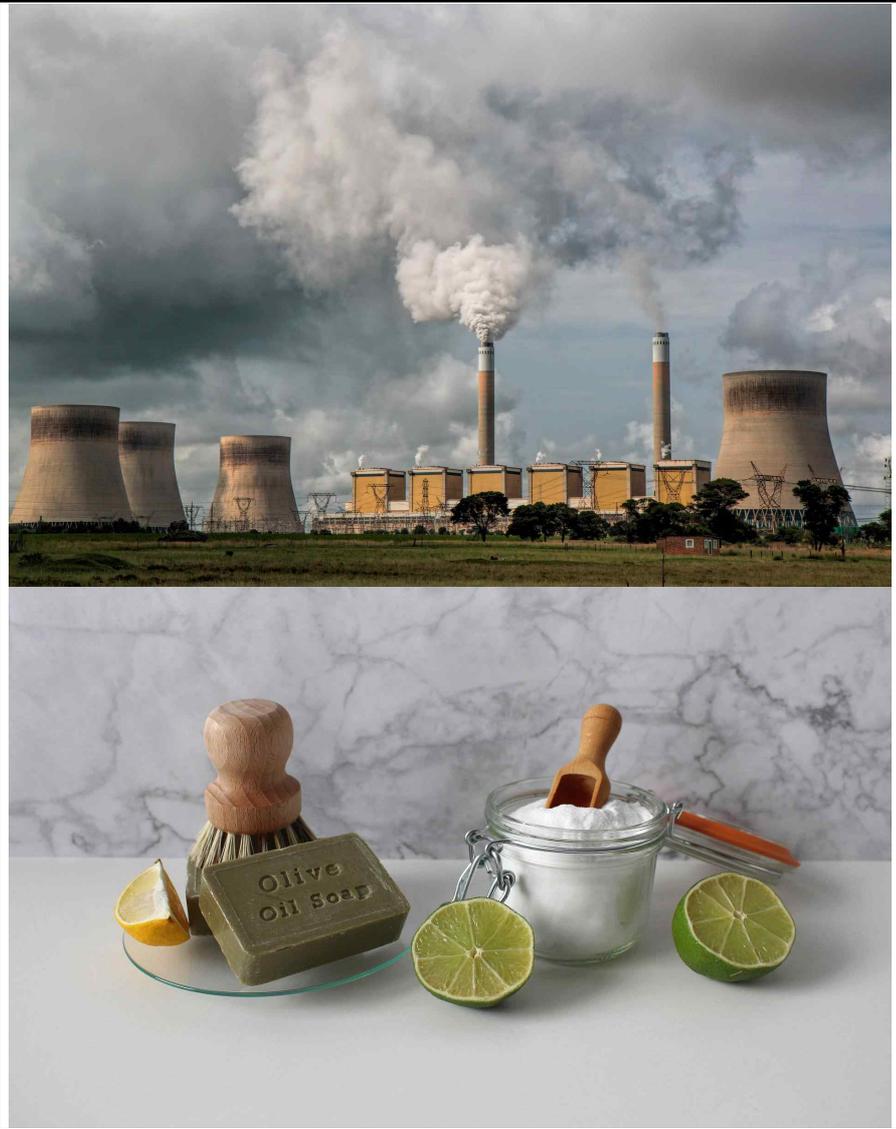


④ 플라스틱 문제 [연서]

-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분당 플라스틱병이 약 100 만개가 팔리고, 매년 100 조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의 40% 이상이 한 번 쓰이고 버려진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매립지나 자연에서 그대로 방치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플라스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총량이 무려 83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만 5000개를 합한 무게에 해당한다. 플라스틱은 자연분해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더 작은 파편으로 부서져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에 쌓인다. 더 무서운 사실은,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이 과정은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과 우리 몸에 쌓인 플라스틱의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상상해보면 버려진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 기업 및 국가의 해결책 : 국가는 기업에게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또한 개인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제한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또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기업은 기업이 먼저 나서서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대체재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 대신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납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실천해야 한다.



- 개인의 해결책 :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면서 배달과 택배 사용이 급증하였는데 이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이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을 줄이고 배달보단 직접 밀폐용기를 가져가 포장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생필품들도 기존의 것에서 다른 것들로 대체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데 바디클렌저, 샴푸, 린스를 천연비누와 오일로,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일회용 생리대를 면 생리대로, 플라스틱 볼펜을 연필과 만년필로, 일회용 렌즈에서 다회용 렌즈로 대체하는 등의 행동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2022년 5월 31일

참가자대표 : 신 **

5주차 : 실생활 속 군중심리

북클럽 팀명	최강사회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류**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신**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실생활 속 군중심리] ; 5주차의 실생활 속 군중심리 활동은 우리가 군중심리를 통해 파악한 군중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생활 속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예시로 파악해보면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하여보는 것을 목표로 실행되었다.</p> <p><실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군중심리></p> <p>① 정치, 권력에서의 군중심리 [유림]</p> <p>- 20대 대통령 선거로 알아보는 정치인들의 지지와 정치, 권력에서의 군중심리 :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얼마나 지지를 받고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그럼 어떻게 정치인들은 군중이라는 패를 자기 곁으로 움직이는 것일까? 바로 확언과 반복을 통해 형성한 위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군중을 움직이고자 결심한 정치인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확고한 사상을 확언하여 반복적으로 대중들에게 증언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모아 그게 맞든 안 맞든 대중들에게 사상을 감염시키고, 자신의 위신을 형성하여 영향력 있는 인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후보들은 흔히 말하는 ‘뽕심’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타이틀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갈라치기하고, 물어뜯는 모습에서 정치인들이 군중심리를 철저히 이용하는 모습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 정치의 가장 큰 키워드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들을 휘어잡기 위한 요소로써 흔히 군중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선구안을 가지고, 정말 이 후보의 공약에 정당성이 있는지, 주장하는 바가 올바른지 진실된 것을 보고, 비판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p> <p>② 전쟁에서의 군중심리 [주희]</p> <p>-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아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군중심리 : 21세기는 과학 기술 및 산업 영역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해도</p>						

과연이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에 대하여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고, 통신망을 막거나 하는 등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과학 기술을 이용한 전쟁이 이젠 일어나고 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이 전쟁에 쏠려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21세기의 전쟁은 큰 여파를 이끌어오고 있다. 그만큼 일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 진위 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정보들을 퍼뜨리기도 한다. 군중심리를 이용한 공격이 있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공격헬기 두 대가 기습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고 이번 공격은 러시아 측의 가짜 깃발 작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가 공격한 것처럼 조작해 공격 명분을 만드는 수법으로, 쌍방 공격임을 알려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비판력 없이 수용하려하는 경향이 있는 군중심리의 특성을 자극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진위여부가 판별된 올바른 정보인지 알아본 후에 행동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종교와 군중심리 [선준]

- 중세 시대 마녀사냥으로 알아보는 종교에서의 군중심리 : 14C~17C 중세 시대는 종교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절대시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이 존재했고, 그 상황에서 비롯된 광신도적인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이란 다수가 개인을, 의심이나 검열 없는 판단,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화형 시키거나 잔인하게 고문하는 등 수 많은 사람들을 종교라는 명목으로 희생시킨 현상을 말한다. 즉 마녀사냥을 살펴보면 군중의 힘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개인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지기 쉬운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다. 한 명의 말에서 시작된 누명이 큰 파장을 가져온 마녀사냥은 곧 책 속에서 언급된 군중은 충동의 노예라는 말을 잘 반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다수가 과도한 피암시성과 편향적인 군중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종교 또한 광신도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④ 소비에서의 군중심리 [연서]

- 밴드왜건 효과로 알아보는 소비에서의 군중심리 :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에 선 밴드들이 탄 마차를 밴드왜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밴드왜건을 뒤 따라서 그를 따르는 긴 행렬이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앞에서 끌고 선동하여 이를 우세한 것으로 부추기는 것을 곧 밴드왜건 효과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는 밴드왜건 효과의 사례들에는 다음이 있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는 “이번 시즌 마

지막 세일”, “오늘 방송만을 위한 한정 구성” 등의 표현을 통해 매진 압박임을 강조하여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또 고무장화의 경우 그냥 고무장화임에도 불구하고 색깔과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든 후, 이름마저 ‘레인부츠’와 같이 영어로만 부르기 시작하자 아무리 그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꼭 필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났다. 이는 편승효과에 따른 수요의 증대이다. 밴드왜건 효과는 일종의 군중들을 선동하여 그를 선호하게 만들어 생겨난 선호에 따른 수요의 증가이므로 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의 형태이다. 전통적 경제이론은 소비자의 소비 의사결정은 다른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비자의 소비는 타인의 소비행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크게 의존하여 대다수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일종의 군중심리 때문이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과 다르게 보이거나, 또는 전체집단 앞에서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크게 의존하는 편승효과를 겪기 때문에 이는 생겨나게 된다. 나는 개인이 이러한 밴드왜건 효과 즉, 일종의 군중심리의 환상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홈쇼핑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과 핫템, 유행템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지양하는 것 등의 방법을 개인이 생활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2일

참가자대표 : 신 **